

전주시 지난해 고용률 전국 최하위

53.1% 불과...장수군은 73.6%로 도내 최고

지난해 하반기 장수군 고용률이 도내에서 가장 높았으며 전주시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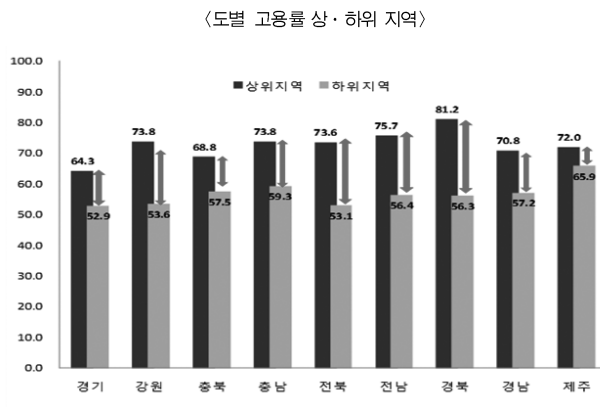
23일 통계청의 2015년 하반기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결과에 따르면 7개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의 시지역(77개)의 고용률을 비교한 결과 전주시가 53.1%로 경기도 과천시(52.9%)와 동두천시(52%)에 이어 전국에서 고용률이 가장 낮았다.

도내에서는 장수군의 고용률(73.6%)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어 부안군(72.8%), 진안군(71.0%), 무주군(70.7%), 임실군(67.3%), 고창군(6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주시에 이어 익산시(54.3%), 군산시(54.6%), 정읍시(59.5%), 김제시(63.0%) 등은 고용률이 낮았다.

실업률을 살펴보면 전주시(3.2%)가 가장 높은 가운데 남원시(1.1%), 김제시(1.0%)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비경제활동인구 활동상태에서 연로 비중은 진안군(47.4%)이 가장 높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농림어업 비중이 높은 군지역의 고용률이 산업화된 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표준협회 업무 협약 체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김진수)는 한국표준협회(협회장 백수현)와 23일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국내외 인증 지원과 품질·생산·공정관리 교육을 통한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특화산업(탄소·농생명·문화) 기업의 지원시스템 구축과 창업기업의 서류작성 지원 ▲센터 지원 기업의 품질·생산·공정관리 등 개선 활동 교육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팩토리 지원사업과 관련된 현장지도(KSA 전문인력 활용) ▲기업의 국내외 인증(ISO 22000 등) ▲농생명식품 기업에 대한 영업(대한민국 LOHAS 인증, 으뜸상품 인정제 등) 지원 ▲청년 창업자의 창의적 문제해결기법(TRIZ 교육, 빅데이터 실무) 교육 등 창업 기업과 중소·중견 기업의 성장 지원을 통해 지역 창조경제 활성화에 상호 협력하기로 협약했다.

김진수 센터장은 "한국표준협회의 업무 협약은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국내외 표준 인증 획득으로 도내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창조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창의와 혁신을 기본으로 혁신 기관들의 융합이 필수적으로, 전국의 지역 창조센터 중 한국표준협회와 처음으로 체결하는 이번 협약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정영수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대학연계 창의학교 협약식

23일 도청 접견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이남호 전북대 총장, 김도중 원광대 총장, 최원철 전주대 부총장, 김동희 군산대 산학협력단장, 이우금 우석대산학협력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 협약식 행사를 가졌다.

민·관·군 협업 온실가스 줄이기 3개 사업 추진

23일 전북도는 도내 시·군에서 추진하는 저탄소생활 실천운동과는 별도로 2016년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에 민·관·군이 협업해 3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사업은 녹색아파트 사업과 녹색병영생활 지원사업, 그린에너지 스텔사업 등이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으로는 먼저 녹색아파트 사업은 시·군별 30개 대상 아파트를 에너지 진단 전문 컨설턴트(2인)가 가정세대를 직접 방문하고 에너지 절약 실천방법 등 저탄소생활

실천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또한 녹색병영생활 지원사업은 송하진 전북도와 제35보병사단과이 지난해 12월17일 체결한 '2015년 저탄소생활 실천 업무협약'에 따라 사단이하 예하부대까지 녹색생활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부대 내 전문 컨설턴트가 주기적으로 방문·교육하고, 전년 대비 전기·상수도·유류 등 에너지 감축량 제할용품 분리수거율 등 부대별로 이행 노력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이어 그린에너지 스텔사업은 20개

대상 학교를 공모·선정해 학생들에게 가정·학교에서 에너지 절약 습관을 교육하고, 학교에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에너지 손실을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올해 도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시범사업이다.

전북도 나석훈 환경녹지국장은 "우리의 자녀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구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피해를 다음 세대까지 물려주지 않도록 도민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저탄소생활 실천 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영수기자

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위해 고사목 전량 제거

전북도는 23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을 위해 서부지방산림청과 공동으로 오는 3월말까지 고사목을 전량 제거한다고 밝혔다.

재선충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나 북방수염하늘소의 성충이 소나무의 이물 통해 감염된 소나무는 100% 말라죽게 된다.

도는 지난 해까지는 훈증방제 방법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했으나 올해는 매개충의 서식지를 원천 봉쇄해 소나무재선충병을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 18일부터 실시한 재선충병 항공감시 조사를 오는 25일까지 진행해 지상에서 발견하지 못한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과 감염 의심목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영수기자

중소·벤처기업 기업지원 설명회 내일 개최

2016년 중소기업 기업지원사업 설명회가 전주 첨단벤처단지 지역혁신관에서 오는 25일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는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경영, 기술 인력, 창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시제품 개발 및 제작지원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업체당 최고 1,500만원)과 기업의 브랜드 강화를 위해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인증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업체당 최고 250만원), 우수 제품 보유 중소기업을 선정해 캐시카우 전문기업을 육성하

기 위한 자금 지원(업체당 최고 3,000만원)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자금유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금유치/기업관리 전문인력지원사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성공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혁신형 기업교류회 지원사업,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 필요한 기업에 연계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영수기자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

도, 62억원 투입 가구당 최대 336만원 까지

전북도가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석면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은 총 62억원이 소요돼 1,850가구의 석면슬레이트 철거를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가구당 최대 336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석면슬레이트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초가지붕 개량재료 널리 보급됐다.

그러나 석면슬레이트는 석면 교환량(10~15%) 건축자재로 빗물에 의한 침식, 자연붕괴, 풍화작용 등으로 인한 노후화가 진행되면 석면비산이 발생해 악성폐암, 폐암 등의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자재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암연구소(IARC)에서는 석면슬레이트를 1987년에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석면슬레이트의 유해성이 알려지면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도에서는 2012년부터 매년 석면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을 추진해 현재 총 6,928가구의 슬레이트가 철거 처리됐다.

올해는 1,850여가구에 대해 석면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추진하면서 철거시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방개량 지원사업과 연계해 처리 할 예정이다.

이는 그 동안 저소득층에서 석면슬레이트 지붕의 철거를 원하더라도 새로운 지붕을 설치할 개량비가 없어 사업신청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는 국토교통부의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농수산식품부의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과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지붕철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2월부터 10월까지 각 시·군 환경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정영수기자

스피치·웅변·면접·리더쉽·시낭송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에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택(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통과 감성의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욱 전담교수의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 교수 • CEO 과정 담당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토론과 면접) 전담교수
- 한국웅변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최초 스피치과정 설치 강연자
- 한국스피치&리더쉽컨설팅 대표
- 스피치 리더쉽경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칼럼리스트
- 저서: '365일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말, 말말', '스피치노하우' 등
- 방송: KBS 아침마당(3회), MBC 전라도사람들, JTV현장다시보기 등 방송출연

※과 목: ①스피치기법과 리더쉽 ②스피치최고지도사(고급)
③주말반: 토요일(매주1회수업) ④면접반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익산캠퍼스)
서남대학교 평생교육원(남원, 순창, 장수)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군산, 김제, 부안)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완주, 김제)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임실, 완주)
전북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정읍, 고창)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